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II

대구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특별출연부 225억 원 규모 실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은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225억 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II’를 실시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상반기 150억 원 규모로 시행된 협약보증에 이어 225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협약보증으로, 국민은행 출연금 15억 원을 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국민은행 기업여신 거래실적이 없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기업이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5월부터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모든 개인 사업자를 위해 보증수수료를 6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 고금리 속 자금난을 가지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금

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보증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신용보증재단〉

☎ 재단 영업점·축전지점 053) 560-6400, 월배지점 053) 639-4343, 유룡단지지점 053) 601-5255, 동지점 053) 982-7500, 범어동지점 053) 744-6600, 중앙지점 053) 256-0300, 서지점 053) 571-2500

대구행복기숙사

2024학년도 2학기 입학생 모집

대구광역시 대구행복기숙사(중구 수창동 소재)에 입소할 2학기 신규 입학생을 7월 22일(월)까지 모집한다.

기숙사는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소생은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300여 명 정도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2일(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구행복기숙사 홈페이지(www.happydorm.or.kr/daegu)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행복기숙사 행정실(☎053-250-3805)로 하면 된다.

입학생들은 1기에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입학생의 안전을 위해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4시간 경비체계 또한 구축했다.

한편 기숙사와 연결된 공공시설 1층에는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희망웃장’ 과 청년 소통의 공간인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층에는 청년 취·창업과 교류를 위한 ‘지역대학 협력센터’가 입주해 있다.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도도김밥

달서구 외동로45길 37(죽전동 261-6)
문의 ☎053-567-7772

“점심 뭐 먹을까?” 건강까지 챙기는 김밥

우연히 동료들과 점심으로 “뭘 먹을까?” 고민 중에 죽전역 부근 골목에 위치한 ‘도도김밥’을 방문하게 됐다.

가게에 들어서면 웃는 얼굴에 친절한 사장님이 맞아주시고,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오픈된 주방으로 더욱 믿음이 가는 듯하다.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밀반찬 김치와 깍두기, 단무지가 나왔다.

김치와 깍두기는 사장님께서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으신 배추와 무로 담그신 것이라 그런지 신선하고 깊은 맛이 나는 듯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요즘 음식점에서는 조리하기 쉬운 시판용을 많이 사용하지만, 국수 양념, 덮밥류 양념 등 대부분 사장님께서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한다. 특히 주위를 보니 국수 드시는 손님



패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문한 김밥이 나왔다. 한 줄만 먹어도 배부를 거 같은 속이 팍 차고 뚱뚱한 비주얼의 김밥!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은 착한 맛집이 아닌가 싶다.

김밥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직접 공수해 만든다고 하니 음식에 정성이 가득하고 좋은 식재료를 써서 더 맛있게 느껴진다.

‘도도김밥’은 배달은 하지 않는다. 이유는 금방 조리한 따뜻하고 신선한 음식들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알게 된 죽전동 맛집 ‘도도김밥’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와서 인사하며 밥 먹는 단골이 되겠다고 인사하며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가게 옆 또 다른 가게에서는 과일을 판매하시는데, 과일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과일이 라고 한다. 한눈에 보기에 달콤해서 금방 따와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군침이 절로 나는 듯하다.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할 때 ‘도도김밥’에 방문해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 어떨까요?

우진우 객원기자

